

해인사 고려대장경 補刻板 연구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을 중심으로—

신은제(申銀齊), 박혜인(朴惠仁)

I. 머리말

II. 해인사 고려대장경 보각판 현황

III. 조선 후기 및 일제강점기 보각판

1. 일제강점기 보각판
2. 조선 후기 유계선 보각판의 제작 시기 및 특징

IV. 무진년형 보각판의 특징과 제작 시기

V. 맺음말

동아대학교 사학과 강사

주요 논저:

신은제

「14세기 전반 원의 정국동향과 고려의 정치도감」, 『한국중세사연구』26(2009);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복장발원문과 발원자들」, 『미술사연구』29(2015); 「14세기 고려 대장경판 인경발원문의 내용과 그 의미」, 『미술사연구』38(2020); 「고려시대 전장의 구조와 경영」(파주: 경인문화사, 2010); 공저, 『고려의 성물, 불복장』(파주: 경인문화사, 2017); 공저, 『국역 고려사』1~30(파주: 경인문화사, 2009)

박혜인

「신라 현강왕대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조성과 김유신의 상징화」(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중복판과 인경본 비교를 통한 고려대장경판 보존관리」, 『미술사연구』38(2020)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판은 현전하는 유일한 완질의 한역 대장경판이다.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고려대장경판은 총 81,352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판 가운데에는 동일 경판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복판’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두 개 이상의 경판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후대 補刻版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보각판은 총 118판으로 전체 경판의 0.14%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려대장경판은 기본적으로 원판이 현재까지 온전히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보각판에 대한 연구는 고려대장경판의 보존과 관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각판은 인경 과정에서 마모되기도 했고 때때로 인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각은 크게 일제강점기와 조선 시기에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보각판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바 있으나 조선 시기 보각판의 특징과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고려대장경판 보각판의 특징과 제작 시기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전체 대장경 가운데 보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경전은 『대반야바라밀다경』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의 보각판은 총 76판으로 전체 보각판 118판의 64.4%를 차지하므로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인경본을 잘 분석하면 고려대장경판 보각의 추이와 그 시대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 76판을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인 1915년(12판)과 1937년(11판)에 보각한 23판을 제외하면 53판은 조선시대 보각판이다. 조선시대 보각은 세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시기는 무진년(1448년, 세종 30) 경으로 총 14판이 보각되었다. 이를 무진년 보각판이라 명명했다. 무진년 보각판은 상하 광곽 단면의 길이가 21cm 내외로 초각판보다 1cm가량 짧으며 광곽 외부에 음각으로 각수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맹부체로 제작된 경판이 있었으며, 열은 계선이 확인되고, 판면부 바닥이 거칠게 마감되었다. 이 형식의 경판 가운데 ‘戊辰年更刻海志’라는 각수명이 확인되었고 또 다른 각수 가운데 한 명인 性見이 1446년에 활동하였으므로 무진년은 1448년(세종 30)으로 편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 시기는 1865년 인경 직후이다. 1865년 南湖 永奇와 海冥 壯雄은 고려대장경 두 부를 인경하였는데 이때는 손상된 경판이 다수 확인되어 인경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현재 전하는 월정사 인경본의 결락장에서 잘 확인된다. 이에 인경 직후 일부 경판의 보각이 실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1865년 보각판은 계선이 있으며 붉은 칠이 도포되어 있지 않고 발원자의 서원이 판각되어 있다. 그러나 1865년 보각판은 6판 8면에 불과해 당시 보각은 여러 사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세 번째 시기는 1899년 인경 직전이다. 1899년 인경은 대한제국 황실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때문에 인경 전에 경판에 대한 조사가 실시

되었고 손상으로 인경이 불가능한 경판의 보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899년 보각판은 붉은 칠이 도포되어 있으며 판수의 앞, 판미의 뒤에 한 행을 띄워 놓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3판 56면 이고, 전체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1899년 판이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1899년 즈음 고려대장경판에 대한 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고려대장경판, 원판, 보각판, 무진년 보각판, 1865년형 보각판, 1899년형 보각판

해인사 고려대장경 補刻板 연구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을 중심으로—

신은제(申銀齊)

박혜인(朴惠仁)

동아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고려대장경판은 현전하는 유일한 한역 대장경판이다. 고려대장경판은 佛力の 도움으로 몽고군이 물러가기를 바라면서 16년 만에 완성되었다.¹ 이렇게 제작된 고려대장경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대장경판은 그 자체가 聖物로 봉안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불교 경전 印經을 위한 목판본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불교 경전의 인정과 사경은 주요한 공덕행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므로²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판은 목판본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여느 목판처럼 고려대장경판은 마모되거나 손상되어 때때로 보수가 이루어졌고,³ 해당 경판의 사용이 불가능해졌거나 여타의 이유로 闕失되었을 때 補刻되기도 했다. 그런데 경판의 손상으로 보각이 이루어졌더라도, 고려 고종 연간에 판각된 경판인 원판은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같은 경판이 2종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통상 이런 경판을 ‘중복판’이라고 부르기도

1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 38년(1251) 9월 임오일. 『고려사』 세가 기록에 의하면 고종 38년에 국왕은 장경판당에서 행향했다는 기록과 함께 16년만에 대장경판을 완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현전하는 고려대장경판 말미에 기재된 간기에 의하면 가장 늦게 판각된 대장경판은 고종 35년(1248)이다. 따라서 대장경판의 판각은 1251년 완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장경판의 판각 간기에 대해서는 남해군·한국문화유산연구원, 『고려대장경판의 판각과 남해』(2013), 부록 고려대장경의 간행 목록 참고.

2 신은제, 「14세기 고려대장경판 인정발원문의 내용과 그 의미」, 『미술사연구』38(2020), p.7.

3 고려대장경판의 보수에 대해서는 박혜인, 「중복판과 인정본 비교를 통한 고려대장경판 보존관리」, 『미술사연구』38(2020), pp.69-97 참조.

했다.⁴

고려대장경판 가운데 초각 이후 후대 보각된 경판의 수량은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까지 조사된 바로는 118판 남짓으로 판단된다.⁵ 원판이 유실되어 보각판만 남아있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⁶ 정확한 보각판의 수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필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고려대장경판은 1865년까지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있었다.⁷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장경판 가운데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중심으로 보각판의 구체적인 제작 시기를 확인해보려 한다. 1915년과 1937년 보각판은 그 특징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⁸ 간략한 언급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선행 연구⁹의 지적처럼, 19세기 후반 보각판의 경우 형태상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식의 경판에 대한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작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기에 여기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보각판 가운데에는 1865년 이전에 판각된 것도 있다. 우왕-간경도감 시기 판각된 것으로¹⁰ 혹은 15세기 중엽에 판각된 것으로¹¹ 간주되는 경판이 그것이다. 이 보각판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점은 보각 시기다. 4장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고려대장경판 보각판은 고려대장경판의 보수와 더불어 대장경판 관리와 인경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경판 제작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까지 알려진 보각 경판의 수는 많지 않다. 보각판은 전체 경판의 0.14%에 불과해, 기본적

4 '중복'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1915년 조선총독부 참서관 사무관 오다 미키지로(小田乾治郎)가 고려대장경판을 조사하면서 전체 경판수를 보고할 때 사용되었다. 오다는 고려대장경판의 수를 81,528판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가운데 결실된 경판이 18판이 있고 중복되는 경판이 121판이 있다고 보고했다. 小田乾治郎, 「大藏經印刷終了報告(1915)」, 『高麗板大藏經印刷顛末』(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1). 이에 반해 서수생은 중복이라는 용어 대신 '二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서수생, 「大藏經版의 二重板과 補遺板의 形像」, 『어문학』36(1977), pp.19-39. 한편 최영호는 중복판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면서 중복판을 '중복분류경판', '원판분류경판'으로 구분한 뒤 '중복분류경판' 가운데 초각판(원판)이 존재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최영호, 「海印寺大藏經板에 포함된 중복경판 및 보각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과 보존방안」, 『문물연구』30(2016), pp.57-89;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해인사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부산: 세종출판사, 2015).

5 최영호, 앞의 논문(2016), p.69.

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3 12-13장, 『아미달마대비바사론』 권88 5-6장, 『아미달마순정리론』 권7 17-18장 3판은 원판(초각판) 없이 보각판만 각각 2판씩 남아 있다. 이 외의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겠지만 원판이 유실되고 보각판만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경판의 보수와 보각이 가장 많았던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추후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7 박해인, 앞의 논문(2020).

8 최영호, 「해인사 소장 강화경판(江華京板)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의 일제강점기 보각판(補刻板) 조성현황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4(2014).

9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앞의 보고서(2015).

10 최영호, 앞의 보고서(2015).

11 박광현, 「해인사 대장경 중복판의 인경본 조사와 시기분석」, 『미술사연구』38(2020).

으로 고려대장경판은 제작 이후 현재까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대장경판의 보각은 경판 관리의 극히 부분적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보각판은 대장경을 완질로 보존하려는 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Ⅱ. 해인사 고려대장경 보각판 현황

현재까지 알려진 보각판은 총 118판이다. 보각판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중복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다.¹² 다만 이 조사 사업의 참여 연구자들은 보각판 조성 시기를 3시기 혹은 7시기로 각각 달리 설정하였다. 연구의 공동연구원은 보고서 Ⅱ장에서 보각 시기를 조선시대, 1915년, 최근 보각판(1977~2007)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이에 반해 연구책임자는 보각판의 보각 시기를 7시기, 1381년(우왕 7)부터 간경도감 운영기간인 1461~1471년까지의 시기(31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간기가 확인된 戊辰年(2판)과 乙酉年(1판) 두 차례, 조선시대(34판), 조선 후기(15판), 1915년(17판), 1937년(18판)로 각각 세분하였다. 최근 박광현은 보각판의 시기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우선 우왕-간경도감 시기로 구분한 경판의 서체가 조맹부체임에 주목하여 이 시기 보각판을 15세기 중엽으로 간주하고, 이어 1865년 보각판, 1915년 보각판, 1937년 보각판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박광현 논문의 논점은 선행 연구에서 우왕-간경도감 시기로 편년한 보각판을 서체 분석과 性見이라는 각수의 활동 시기를 통해 15세기 중엽에 제작된 보각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¹³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첫째, 계선이 있는 보각판의 정확한 제작 시기 및 형태상의 차이를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중복판’ 조사에서, 계선이 있는 보각판은 두 시기로 구분되었는데 하나는 조선 후기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였다. 조선 후기 역시 조선시대이므로 이러한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박광현은 1865년 보각판과 계선이 있는 보각판으로 구분하였는데, 경판의 형태를 통해 구분은 하였으나 정확하게 두 경판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계선이 있는 보각판을 두 시기 혹은 형태로 구분한 것은 육안으로 보아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두 경판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작 시기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둘째는 우왕-간경도감 시기 보각된 것으로 알려진 경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왕-간경도감이라는 시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었고 편년의 기준이 되는 특징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간기가 남아있는 무진년판의 설명도 필요하다. 무진년이 언제인지 우왕-간경도감 시기 판각된 경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보각판의 각 시기별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비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전체 보각

12 해인사·합천군, 앞의 보고서(2015).

13 박광현, 앞의 논문(2020), pp.33-68.

판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알려진 보각판은 총 118판이다. 이는 고려대장경판 초간 당시 守其가 작성한 『大藏目錄』과 1865년 海冥 壯雄이 만든 『補遺目錄』을 합한 수치이다. 그런데 『보유목록』에 있는 보유판 가운데에는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 17-18장, 같은 책 권2 4-5장의 처음 판간 시기는 1503년(연산군 9)이며, 『보유목록』 자체도 1865년에 처음 판각되었으므로 『보유목록』에 기재된 경판을 함께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장목록』에 기재된 경전의 보각판 103판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주로 『대반야바라밀다경』을 분석하였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의 보각판은 76판으로 전체 103판의 73.8%에 달한다. 주지하듯이 『대반야바라밀다경』은 『대장목록』에 기재된 경전 6,571권¹⁴ 가운데 600권, 대장경판에서 9.13%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각판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사례만 잘 분석해도 고려대장경판 보각의 추이와 그 시대적 특징이 확인 가능하다(부표).¹⁵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대장경판의 절대 다수는 초각된 원판이고, 보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보각판은 『보유목록』을 포함한 전체 고려대장경판 81,352판 중 118판(0.145%)에 불과하고 이 118판 가운데 원판은 없고 보각판만 남아있는 경우 현재까지는 3건¹⁶밖에 알려져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고려 고종 연간에 제작된 경판 거의 전부는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판을 위주로 보존해온 과정은 『대반야바라밀다경』 경판의 현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손상은 장식이 결구된 네 모서리에서 발생했다.¹⁷ 이로 인해 글자가 손상되자 경판 모서리 일부를 절단해 새 부재를 끼워 수리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09 16-17장의 사례이다. 현재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09 16-17장은 원판과 2종의 보각판이 있다.¹⁸ 그런데 1899년 인경 당시 보각판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을 수리해 인경하였다. 1381년 오타니 인경본 이후 경판에 손상이 있어 보각판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1899년 여전히 원판을 인경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원판을 최대한 수리하여 인경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도 1).

원판을 유지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판은 손상으로 목판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각판을 제작하였다. 예컨대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1 26-27장의 원판은 현재 손상이 매우 심각한 경판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경판의 손상은 1865년 이전부터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1865년과 1899년 고려대장경판의 인경 당시 이 경판은 인경되지 못하고 누락되었다. 때문

14 김운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2002), pp.65-66.

15 『대반야바라밀다경』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보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경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여러 경전에 산재해 있는 보각판의 경우 인경본 조사가 용이하지 않아 조사는 『대반야바라밀다경』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1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3 12-13장,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88 5-6장, 『아비달마순정리론』 권7 17-18장.

17 법보종찰 해인사·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보존처리 연구용역사업』(부산: 시선, 2020), pp.244-248.

18 보각판의 제작 시기는 IV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경판	전체	
	세부 사진	
1381년 오타니본	전체	
	세부 사진	
1899년 해인사본	전체	
	세부 사진	

도 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09 16장(경판 좌우 대칭)

1381년
오타니본

增語既非有如何可言即無忘失法
若常若無常增語是菩薩摩訶薩即
恒住捨性若常若無常增語是菩薩
摩訶薩善現汝復觀何義言即無忘
失法若樂若苦增語非菩薩摩訶薩
即恒住捨性若樂若苦增語非菩薩
摩訶薩耶世尊若無忘失法樂若
恒住捨性樂若苦尚畢竟不可得性非
有故況有無忘失法樂若苦增語及恒
住捨性樂若苦增語此增語既非有如
何可言即無忘失法若樂若苦增語
是菩薩摩訶薩即恒住捨性若樂若
苦增語是菩薩摩訶薩善現汝復觀
何義言即無忘失法若我若無我增
語非菩薩摩訶薩即恒住捨性若我
若無我增語非菩薩摩訶薩耶世尊
若無忘失法我無我若恒住捨性我
無我尚畢竟不可得性非有故況有
無忘失法我無我增語及恒住捨性
我無我增語此增語既非有如何可
言即無忘失法若我若無我增語是
菩薩摩訶薩即恒住捨性若我若無
我增語是菩薩摩訶薩善現汝復觀

大般若經卷第三十四 增語品 黃

1865년
일정사본

增語既非有如何可言即無忘失法
若常若無常增語是菩薩摩訶薩即
恒住捨性若常若無常增語是菩薩
摩訶薩善現汝復觀何義言即無忘
失法若樂若苦增語非菩薩摩訶薩
即恒住捨性若樂若苦增語非菩薩
摩訶薩耶世尊若無忘失法樂若
恒住捨性樂若苦尚畢竟不可得性非
有故況有無忘失法樂若苦增語及恒
住捨性樂若苦增語此增語既非有如
何可言即無忘失法若樂若苦增語
是菩薩摩訶薩即恒住捨性若樂若
苦增語是菩薩摩訶薩善現汝復觀
何義言即無忘失法若我若無我增
語非菩薩摩訶薩即恒住捨性若我
若無我增語非菩薩摩訶薩耶世尊
若無忘失法我無我若恒住捨性我
無我尚畢竟不可得性非有故況有
無忘失法我無我增語及恒住捨性
我無我增語此增語既非有如何可
言即無忘失法若我若無我增語是
菩薩摩訶薩即恒住捨性若我若無
我增語是菩薩摩訶薩善現汝復觀

大般若經卷第三十四 增語品 黃

1899년
해인사본

增語既非有如何可言即無忘失法
若常若無常增語是菩薩摩訶薩即
恒住捨性若常若無常增語是菩薩
摩訶薩善現汝復觀何義言即無忘
失法若樂若苦增語非菩薩摩訶薩
即恒住捨性若樂若苦增語非菩薩
摩訶薩耶世尊若無忘失法樂若
恒住捨性樂若苦尚畢竟不可得性非
有故況有無忘失法樂若苦增語及恒
住捨性樂若苦增語此增語既非有如
何可言即無忘失法若樂若苦增語
是菩薩摩訶薩即恒住捨性若樂若
苦增語是菩薩摩訶薩善現汝復觀
何義言即無忘失法若我若無我增
語非菩薩摩訶薩即恒住捨性若我
若無我增語非菩薩摩訶薩耶世尊
若無忘失法我無我若恒住捨性我
無我尚畢竟不可得性非有故況有
無忘失法我無我增語及恒住捨性
我無我增語此增語既非有如何可
言即無忘失法若我若無我增語是
菩薩摩訶薩即恒住捨性若我若無
我增語是菩薩摩訶薩善現汝復觀

大般若經卷第三十四 增語品 黃

에 1915년 인경 때 보각판이 제작되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4 5장의 경우 1865년 인경 당시 경판의 손상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1899년에는 보각판이 인경되었다(도 2).

권34 5장의 경우 1381년 오타니 인경본에서 확인되는 경판의 상태는 양호한 반면, 1865년 월정사 인경본에서 경판은 하단부 양 모서리에서 손상이 확인된다. 특히 1행 14자와 23행 14자 주변으로 손상이 진행되었고 이런 이유로 1899년에는 보각판을 인경하였다. 따라서 원판을 수리해 사용하더라도 인경을 위한 목판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 어려울 때는 보각판을 제작하여 인경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원판은 그대로 장경판전에 보존하였다.

Ⅲ. 조선 후기 및 일제강점기 보각판

1. 일제강점기 보각판

보각판 가운데 보각 시기가 가장 분명한 경판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1937년 보각판이다.¹⁹ ‘大正四年雕刻’이라 기재된 1915년 보각판은 일자형 장식에 붉은 칠이 도포되어 있으며 글씨는 金敦熙(1871~1936)가 필사한 것이다. 1915년 보각판은 총 17판이고, 이 가운데 『대반야바라밀다경』은 12판이 보각되었다(도 3).

한편 1937년 당시 만주국 황제였던 푸이(溥儀)에게 선물하기 위해 고려대장경판은 다시 인경되었다. 당시 1915년 보각판 문자의 氣韻과 體格이 고려 원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해인사 소장 인경본, 금강산 정양사 소장 인경본, 일본 조조지(増上寺) 소장 인경본을 확보하고 이를 collotype로 판



도 3. 1915년 보각판

19 이 시기 보각판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자세하게 규명하였고 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만 해둔다. 보각판에 대해서는 최영호, 「해인사 소장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일제강점기 補刻板 조성현황과 성격」, 『한국중세사학회』40(2014), pp.101-135 참조.



도 4. 1937년 보각판



도 5. 유계선 보각판

하본을 제작하여 보각판을 판각 후 인정되었다. 따라서 1937년 보각판의 서체는 고려 원판과 가까웠다. 그러나 마구리 결구가 엉성하고 경판 표면에 칠이 없어 외관상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도 4). 이 때 보각된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총 11판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 76판 가운데 1915년과 1937년 보각판은 총 23판으로 30%정도를 차지한다. 다만 1937년 보각판은 1915년 보각판을 서체만 바꾸어 판각한 것이므로, 경판 장차가 다른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 63판 가운데 일제강점기 보각판은 12판(19%)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반야바라밀다경』의 80%정도는 조선시대에 보각한 것이다.

2. 조선 후기 유계선 보각판의 제작 시기 및 특징

보각판 가운데에는 제작 시기가 1865년 이후로 판단되는 계선이 있는 유계선판도 있다. 이 경판은 총 39판에 달해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유계선 보각판은 형태상으로 2종으로 구분된다(도 5). 행 사이에 계선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판형은 매우 상이하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경판의 제작 시기 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경판을 ‘1865년형’, 다소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경판을 ‘1899년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붉은 칠의 도포 유무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 1장은 경판 전체에 붉은 칠이 도포되어 있는 반면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3 1장은 칠의 도포를 확인할 수 없다. 차이는 또 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3 1장 판미에는 발원자의 이름이 기재된 반면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 1장에는 발원자의 이름이 판각되어 있지 않다. 광곽의 형태도 다르다. 권2 1장은 판수와 판미에 1행 정도의 공간을 비워 둔 반면 권53 1장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 39판의 유계선 보각판 가운데 1865년형 보각판은 6판이고 1899년형 보각판은 33판으로 1899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부표 참조).

두 가지 형태의 유계선 보각판과 관련하여 해명해야 할 과제는 보각 시기이다. 유계선 경판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다만 두 가지 형태 보각판의 조성 시기에 대해서 견해를 유보하거나²⁰ 칠이 도포된 보각판(1899년형)의 조성 시기를 조선시대, 칠이 도포되지 않은 보각판(1865년형)을 조선 후기로 각각 편년했다.²¹ 조선시대와 조선 후기로 편년한 정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고, 조선 후기와 조선시대는 편년으로 적절한 범주가 아니므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3 1장에는 보각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 이 경

『대반야바라밀다경』							
권9 3	권23		권53 1	권144 19	권153 21	권162	
	21	22				1	2
							

도 6. 1865년형 보각판 발원자

20 박광현, 앞의 논문(2020),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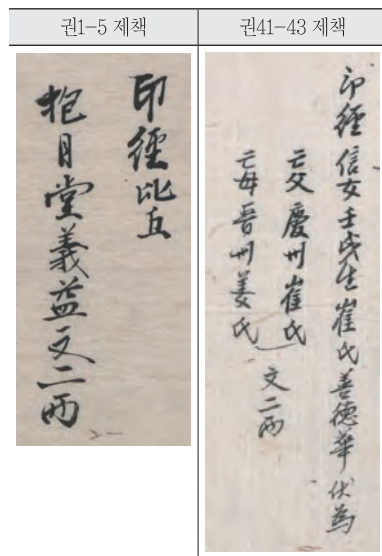
21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최영호, 앞의 보고서(2015).

판 판미에는 ‘사미 남호당 영기가 삼가 부모를 위해(沙彌南湖堂永奇伏爲父母)’라는 후원자 이름이 판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호당 영기는 1865년 고려대장경판의 인경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²² 따라서 이 경판은 1865년 즈음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1865년형 경판 6판의 판미에는 모두 발원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권9 3장에는 ‘信女堅德行爲父母’, 권23 21에는 ‘信女德萬行爲父母’, 22장에는 ‘信女戒燠行爲父母’, 권144 19장에는 ‘信女金氏爲父母’, 권153 21장에는 ‘信女普幢花爲父母’, 권162 1장에는 ‘比丘大雲堂東皐’, 2장에는 ‘沙彌白口爲父母’가 각각 판각되어 있다(도 6).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발원은 1865년 인경된 월정사본에서도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월정사본은 두 권 이상을 엮어 製冊하였는데 각 책의 말미에는 묵서로 후원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후원자 이름의 기재 형태는 1865년형 보각판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권1-5 제책의 말미에는 ‘印經比丘 抱月堂義益文二兩’라 묵서되어 있고, 권41-43 제책의 말미에는 ‘印經信女 壬戌生 崔氏 善德華 伏爲 亡父 慶州崔氏 亡母 晉州姜氏 文二兩’이라 묵서되어 있다(도 7). 이처럼 보각판과 인경본에서 발원자들의 기재 방식이 매우 유사해, 보각판이 1865년 인경 즈음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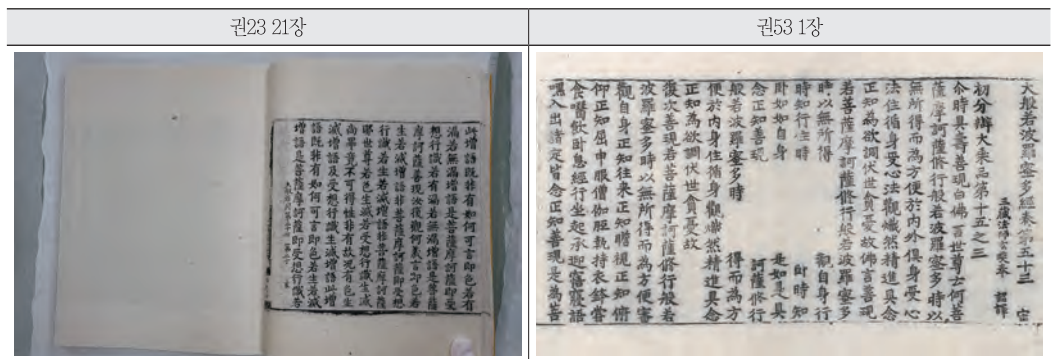
그런데 1865년형 보각판은 1865년 인경 당시에 사용되지 않았다. 1865년 인경본인 월정사 인경본을 검토해 보면, 1865년형 보각판 6판 8면 권53 1장을 제외한 나머지 판면은 모두 인경본 없이 백지로 제책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도 8). 원판의 상태가 양호했던 권53 1장은 인경하였지만, 나머지 면은 원판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인경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권53 1장의 경우도 원판을 인경하였지만 매목 부분이 결락된 채 인경되었다(도 9).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1865년형 보각판은 1865년 인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판이 인경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경우를 확인한 뒤, 판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1865년형 보각판은 1865년 인경 이후 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1865년 보각판으로 명명한 것은 이들 경판의 보각이 1865년 인경 사업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1865년 인경 후 진행된 보각 사업은 손상되어 인경이 힘든 원판 모두를 보각한 것은 아니었다. 1865년 인경 당시 인경되지 않은 판면이 보각판보다 훨씬 더 많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계선 보각판 가운데 1865년형 보각판은 소수이다. 1865년 보각의 제한성은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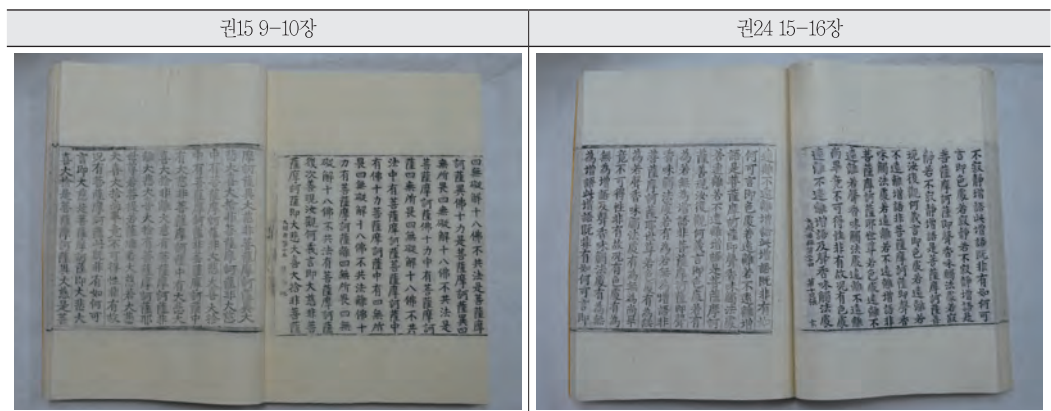
도 7. 월정사 인경본 인경 시주자

22 1865년 대장경 인경에 대해서는 김방울, 「월정사소장 고려제조대장경 인경본에 대하여」, 『서지학보』31(2007), pp.163-188 참조.



도 8. 인경이 결락된 판

도 9. 매목부가 결락된 인경



도 10. 1899년형 보각판(해인사 소장본)

20-21장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이 경판은 1865년 인경 당시 인경되지 못하였고 이후 보각판이 제작되었다. 그런데 1865년 직후 이 경판을 보각하면서 21장은 보각하였으나 20장은 보각하지 못했다. 현재 20장은 1915년 보각판이 전한다. 1865년 직후 보각판이 완전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재정적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이 때 보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로 추측된다.

유계선 보각판 가운데에는 칠이 도포되어 있으면서 1865년형 보각판과는 상이한 경판도 존재한다. 이 보각판은 1899년 인경본에서 확인되므로, 1899년형 보각판이라 명명했다. 이 유형의 보각판은 33장 56면으로 전체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 유형의 보각판은 1899년 인경본에서 확인되는데 1899년 인경 당시 권15 9-10장, 권24 15-16장은 모두 보각판을 사용하였다(도 10).

따라서 1899년형 보각판은 1899년 인경 이전에 판각되어 인경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1899년형 보각판이 1899년 이전에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 때문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1865년 인경으로 경판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865년 海冥 壯雄이 찬한 '印成

大藏經跋²³에 의하면, 上士 南湖와 長老 南溟이 대장경 인경을 서원하여 1년이 되지 않아 14,000금을 모으고 한 달을 넘지 않아 대장경 두 부를 인경하였다. 이때는 200~300년 동안 대장경의 인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려대장경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해인사 장경판전에 봉안되어 있는 각종 경판의 분류 역시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해명 장웅은 별도의 『보유목록』을 작성하여 전체 고려대장경판의 범위를 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1년이 넘지 않는 기간에, 전체 대장경의 범위를 확정하고 인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상된 경판의 보각까지는 진행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1865년 인경 과정에서 전체 경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이 때 인경이 불가능한 경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1899년의 인경은 국가의 전폭적인 후원 하에 이루어졌다. 『해인사지』에 기재된 「印成事實」에 의하면, 1898년 5월 고종황제는 宮內府 대신 李載純과 侍從院 奉侍 姜錫鎬와 尙宮 崔氏에게 인경을 명하였고 그해 7월 돈 62,500금을 化主僧 梵雲에게 내려주었다.²⁴ 그로부터 약 7개월 뒤 1899년 3월 7일 인경을 개시해 4월 20일 4부에 대한 인경을 완료했다. 이처럼 1899년 인경은 전적으로 대한제국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²⁵ 때문에 미리 경판의 상태를 조사하였을 것이고 이 때 1865년 인경 과정에서 고려대장경판 상태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상 두 가지 이유로 1899년에는 인경이 불가능한 경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각을 먼저 실시하였고, 새로 보각된 경판은 인경에 사용되었다. 한편 1865년 인경 직후 보각되었던 경판도 1899년 인경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865년형 보각판 권144 19장은 1899년 인경에 사용되었다(도 11).



도 11. 1899년 인경에 사용된 1865년형 보각판 사례

23 이지관 편저, 『해인사지』(서울: 伽山文庫, 1992), pp.293-295.

24 이지관 편저, 위의 책(1992), p.295.

25 1899년 인경은 1915년 인경 이전 이미 대한제국에서 고려대장경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경판 상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915년 인경의 과정은 『高麗板大藏經印刷顛末』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1914년 8월 고려대장경판의 인경이 결정되었고 10월 9일 경판 조사를 위해 총독부 관료 有賀 등을 해인사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40일 간의 조사를 거쳐 18판의 결판을 확인하였고 이를 보각하여 1915년 3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세 부의 인경본을 인출하였다. 1915년 인경 당시 보각이 이루어진 시간을 고려하면 1899년 인경 당시에도 보각의 시간은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1899년 인경을 진행하면서 보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손상되어 인경이 불가능한 경판 전체에 대한 보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1 26-27장은 1915년 때에야 다시 보각되었다.

IV. 무진년형 보각판의 특징과 제작 시기

고려대장경판의 보각판 가운데에는 계선이 없으면서 일제강점기 보각된 경판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경판이 존재한다. 총 14판 25면에 달하는 이 유형의 경판은 대략 네 가지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⁶ 첫째, 상하 광곽 길이가 원판보다 짧다. 둘째, 판면부 글자 사이에 흐릿한 계선이 있으면서 바닥면 마무리가 원판에 비해 거칠다. 셋째 ‘조맹부체’로 쓰여진 경판이 4판이 존재한다.²⁷ 넷째 14판 가운데 9판에는 광곽 외부 좌측 혹은 우측에 음각으로 각수명이 기재되어 있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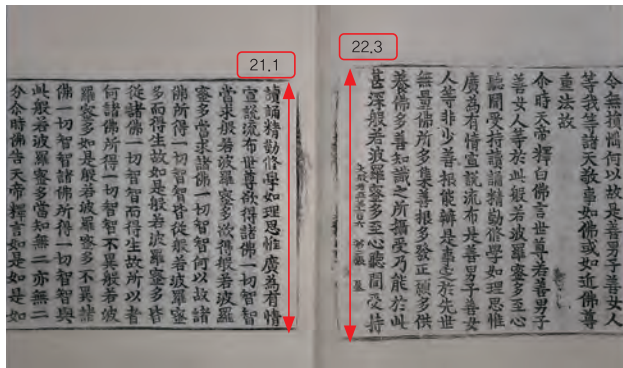
표 1. 무계선 보각판

순차	경전 이름	권차	합차	장차	비고
1	大般若經	2	天	1-2	2장 광곽 외부 ‘刻義澄’ 음각
2	大般若經	5	天	1(단면)	
3	大般若經	7	天	4(단면)	광곽 외부 ‘幸全’ 음각
4	大般若經	76	荒	20-21	20장 광곽 외부 ‘義澄’ 음각
5	大般若經	78	荒	23-24	23장 광곽 외부 ‘性實’ 음각
6	大般若經	106	盈	3-4	4장 광곽 외부 ‘戊辰年更刻海志’ 음각
7	大般若經	109	盈	16-17	17장 광곽 외부 ‘性見’ 음각
8	大般若經	159	張	3-4	
9	大般若經	170	寒	23-24	24장 광곽 외부 ‘學牧’ 음각
10	大般若經	176	來	21(단면)	광곽 외부 ‘性見’ 음각
11	大般若經	178	來	19-20	
12	大般若經	180	來	11-12	11장 광곽 외부 ‘學牧’ 음각
13	大般若經	228	冬	8-9	
14	大般若經	534	稱	19-20	

26 최영호는 중복판에 대한 연구에서, 여기서 나열한 14판의 판각 시기를 크게 두 시기, 무진년(『대반야바라밀다경』 권106 3-4장, 권228 8-9장 2판)과 우왕-간경도감 시기(12판)으로 구분하였다. 우왕-간경도감 시기 경판도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유형, 즉 시주 단면, 상하 단면, 복합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최영호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형태적 구분이 제작시기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한편 최영호는 우왕-간경도감 시기 제작된 경판의 각수 心修, 六空, 性見이 주로 간경도감 전후시기에 활동한 각수인 점을 들어 보각판의 상당수는 간경도감 운영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이해했다.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앞의 보고서(2015), pp.494-505.

27 박광현은 보각판 가운데 조맹부체로 판각된 경판을 총 11판 17면으로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대반야바라밀다경』은 4판 7면이다. 박광현, 앞의 논문(2020), pp.49-50.

보다 구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보자. 이 보각판은 상하 광곽의 길이가 원판보다 약 1cm 가량 짧다(도 12). 각 경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반야바라밀다경』의 경우 원판 상하 광곽의 길이는 평균 22cm 내외이다. 예컨대 권106 2장의 상하 광곽 길이는 22.3cm이다. 한편 경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보각판은 대개 원판보다 1cm 가량 짧은 21cm 정도이다. 예컨대 권106 3장의 상하 광곽의 길이는 21.1cm이다(도 12). 보각판 14판 가운데 11판의 상하 광곽의 길이를 측정해보니 권106의 사례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표 2). 보각판의 상하 광곽은 20.2~21.7cm이며 원판은 22.1~22.7cm로, 원판과 보각판은 광곽 상하 광곽의 길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권2 1-2장 역시 육안으로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12. 원판과 무진년 보각판 상하 광곽 길이 비교(권106 2장, 3장. 월정사 소장본)

표 2. 무진년 보각판 상하 광곽 길이

경전 이름	권차	합차	장차	상하 광곽 길이(cm)	원판 상하 광곽 길이(cm)
大般若經	76	荒	20	20.2	19장, 22.2
			21	21	
大般若經	78	荒	23	20.7	22장, 22.7
			24	21	
大般若經	106	盈	3	21.1	2장, 22.3
			4	20.9	
大般若經	109	盈	16	21.5	15장, 22.2
			17	21.4	
大般若經	159	張	3	21.2	2장, 22
			4	21.2	
大般若經	170	寒	23	20.5	22장, 22.1
			24	21	
大般若經	176	來	21(단면)	22	20장, 22.6
大般若經	178	來	19	20.6	18장, 22.6
			20	20.9	
大般若經	180	來	11	20.9	10장, 22.2
			12	20.6	
大般若經	228	冬	8	21.7	7장, 22.3
			9	21.4	
大般若經	534	稱	19	20.6	18장, 22.5
			20	20.4	

* 위의 수치는 월정사 소장본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

보각판	권2 1장 	권106 3장 	권109 16장 	권180 11장 
	원판 	권106 2장 		

도 13. 보각판 판면(좌우 변환)

무계선 보각판의 두번째 특징은 권5 1장, 권534 19-20장을 제외하면 판면부 각 행 사이에 미세한 계선이 있으며 글자를 판각한 바닥면이 거칠다는 점이다. 물론 원판에서도 글자를 판각한 바닥면이 거친 경우가 있으나 무계선 보각판은 육안으로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거칠게 마감되어 있다. 원판의 판면부는 글자가 새겨진 바닥면이 비교적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어 글자가 보다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반면 보각판은 바닥면이 거칠게 마감되어 있어 원판에 비해 눈에 확연히 들어오지 않는다. 아래(도 13)는 원판과 무진년 보각판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권106의 경우 3-4장은 보각판 앞장인 2장을 확인해 보각판의 차이를 부각해보았다.

무계선 보각판의 세 번째 특징은 독특한 각수 표기이다. 무진년 보각판은 14판 가운데 9판에 각수명이 기재되어 있다. 각수명은 광곽 외부에 음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판의 각수 기재방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원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판에서 광곽 외부에 음각으로 각수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광곽과 좌우 변란 외부에 양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를



도 14. 각수 기재 방식

도 15. 의정 서체 비교

차지한다(도 14).²⁸ 따라서 보각판의 각수 기재 방식은 원판과 기본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계선 보각판의 특징은 서체이다. 무진년 보각판의 일부 경판은 조맹부체를 취하고 있어 구양순체로 판각된 원판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어²⁹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동일 각수가 다른 서체로 판각한 사례가 확인되어 서체만으로 시기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각수 義澄이 판각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 1-2장과 권76 20-21장의 경우 서체는 상이하다. 따라서 서체만을 보각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도 15).

무계선 보각판의 존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점은 보각판의 제작 시기이다. 보각 시기와 관련하여 권103 4장의 음각이 주목된다. “무진년 다시 새긴다. 해지[戊辰年更刻海志]”라는 각수명에서 이 경판이 무진년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계선 보각판의 판각 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진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무진년이 언제인지는 현전하는 인경본의 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무진년 보각판인 권106 3-4장은 1865년 월정사 인경본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무진년은 1865년 이전에 판각되었다(도 16). 이에 반해 1381년 인경된 오타니 본에는 무진년판이 아닌 원판이 인경되어 있다. 따라서 무진년판은 1381년에서 1865년 사이에 보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경판의 판각은 주로 인

28 필자들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5의 각수 기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5 75판 가운데 음각으로 각수를 표기한 사례는 4판뿐이었다.

29 박광현, 앞의 논문(2020).



도 16. 오타니 인경본과 월정사 인경본 (권106 3장)

경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고려대장경판의 인경은 각종 문헌과 인경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81년 이후 대장경판의 인경은 조선 건국 후에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 1500년 이후 1865년까지 고려대장경판의 인경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³⁰ 따라서 보각 시기는 1500년 이전으로 소급된다. 또 오타니 인경본은 무진년 보각판이 아니라 원판으로 인경되었으므로 무진년 보각판의 제작은 최소한 1381년 이후부터 1500년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무진년은 1388년, 1448년이다. 1388년은 위화도회군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이므로 인경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진년은 1448년(세종 30)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이다.

무진년판의 제작 시기는 각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각판의 각수 중 한 명인 性見은 1446년 가야산 止觀寺에서 간행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목판의 각수였다.³¹ 이 책의 마지막에는 판각 연도, 시주자 명단, 그리고 각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판각 연도는 ‘正統拾一年丙寅 二月 伽耶山 止觀寺 開板’이라는 기록을 통해

30 이지관 편저, 앞의 책(1992), pp.224-231; 불교문화재연구소,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관리 프로그램 구축』(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7), pp.23-26; 박혜인, 앞의 논문(2020), pp.77-85.

31 박광현, 앞의 논문(2020), p.50.

1446년임을 알 수 있고, 시주자는 ‘前監察 琴以成’ 등이었으며 각수는 中德 仁壽와 性見이었다.

무진년이라는 간기, 성견이라는 각수명 등을 고려하면 유사한 특징을 가진 무계선 보각판의 판각 시기는 1448년(세종 30) 무진년³² 즈음으로 판단된다.³³ 1440년(세종 22) 세종은 경상도 관찰사에게 해인사의 중수를 명하였고,³⁴ 1446년(세종 28) 소헌왕후가 사망한 후, 세종이 호불책에 힘을 기울이던 사정을³⁵ 고려하면 1448년 해인사에서 대장경판의 보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³⁶

V. 맺음말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판은 현전하는 유일한 완질의 한역대장경 목판본이다. 이 경판은 13세기 전반기 제작된 이래 800년 가까이 초각 당시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고 이 때문에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고려대장경판이 佛寶로서 각별하게 관리된 결과일 것이다.

예외적 경우지만, 고려대장경판 일부 경판은 인경 과정에서 마모되기도 했고 때때로 인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기도 했다. 때문에 고려대장경판은 118판의 보각판이 제작되었다. 전체 보각판 가운데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은 76판으로 118판의 64.4%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고려대장경판의 보각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 76판을 분석한 결과, 23판은 1915년(12판)과 1937년(11판), 나머지는 조선시대에 보각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보각판은 동일판을 각각 서체를 달리해 보각한 것이므로 보각은 주로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보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시기는 무진년형 보각판이 제작된 1448년(세종 30) 즈음이다. 짧은 상하 단면 길이, 무계선이나 엷은 계선 흔적, 매끄럽지 않게 마무리된 바닥면, 광택 외부 음각으로 각수명 기재, 조맹부체의 영향 등이 무진년판의 특징이다.

조선시대 두 번째 보각은 1865년(고종 2) 인경 직후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인경되지 못한 탓에

32 현재 해인사에는 세조 4년(1460)에 인경된 세조본이 산질로 전하고 있다. 이들 세조본 가운데에는 『대반야바라밀다경』 권7도 남아 있다. 해인사 정보박물관의 도움으로 필자가 육안으로 확인해 본 결과 무진년판으로 파악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7 4장이 세조본에도 인경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무진년판은 1460년 이전에 판각되었으며 현재로서는 1448년으로 판단된다.

33 다만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 1장, 권159 3-4장, 권534 19-20장은 바닥면의 마감이 다른 경판과 구분되고, 각수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다 이른 시기 보각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4 『世宗實錄』 권88, 世宗 22년(1440) 2월 己丑.

35 최연주, 「조선시대 『고려대장경』의 인경과 해인사」, 『동아시아불교문화』10(2012), pp.235-266.

36 세종 30년 보각은 세조 4년 인경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제한된 지면으로 다룰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로 정리하려 한다.

경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1865년 인경본은 경판의 상태에 따라 일부 결락장이 발생했다. 또 인경 이후 손상이 심각해 인경하지 못한 경판에 대한 보각이 이루어졌다. 이 때 보각된 경판은 계선이 있으며, 칠이 도포되지 않았고, 판미부에 후원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세 번째 보각은 1899년(광무 3) 인경 직전에 이루어졌다. 1899년 인경은 대한제국 황실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때문에 인경 전에 경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손상으로 인경이 불가능한 경판에 대한 보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899년 보각판은 붉은 칠이 도포되어 있으며 판수의 앞, 판미에 한 행을 띄워 놓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에서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판 보각판의 특징과 보각 시기를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각판의 특징과 보각 시기 파악은 경판에 대한 조사와 인경본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때 가능하다. 때문에 분석의 대상을 『대반야바라밀다경』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³⁷

37 이나마도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월정사 인경본의 조사 역시 본 논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부표. 『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 현황(판각 시기별 분류)

순차	경전명	권차	합차	장차	보각 시기	순차	경전명	권차	합차	장차	보각 시기
1	大般若經	2	天	1-2	무진년(1448)	40	大般若經	100	月	3(단면)	1899년
2	大般若經	5	天	1(단면)	무진년(1448)	41	大般若經	106	盈	5-6	1899년
3	大般若經	7	天	4(단면)	무진년(1448)	42	大般若經	109	盈	16-17	1899년
4	大般若經	76	荒	20-21	무진년(1448)	43	大般若經	122	辰	12-13	1899년
5	大般若經	78	荒	23-24	무진년(1448)	44	大般若經	130	辰	9-10	1899년
6	大般若經	106	盈	3-4	무진년(1448)	45	大般若經	170	寒	23-24	1899년
7	大般若經	109	盈	16-17	무진년(1448)	46	大般若經	187	署	12(단면)	1899년
8	大般若經	159	張	3-4	무진년(1448)	47	大般若經	188	署	15-16	1899년
9	大般若經	170	寒	23-24	무진년(1448)	48	大般若經	209	秋	10-11	1899년
10	大般若經	176	來	21(단면)	무진년(1448)	49	大般若經	209	秋	20-21	1899년
11	大般若經	178	來	19-20	무진년(1448)	50	大般若經	216	收	1-2	1899년
12	大般若經	180	來	11-12	무진년(1448)	51	大般若經	224	冬	7-8	1899년
13	大般若經	228	冬	8-9	무진년(1448)	52	大般若經	254	餘	3-4	1899년
14	大般若經	534	稱	19-20	무진년(1448)	53	大般若經	506	巨	7-8	1899년
15	大般若經	9	天	3(단면)	1865년	54	大般若經	21	玄	13(단면)	1915년
16	大般若經	23	玄	21-22	1865년	55	大般若經	31	黃	26-27	1915년
17	大般若經	53	宙	1(단면)	1865년	56	大般若經	33	黃	12-13	1915년
18	大般若經	144	列	19(단면)	1865년	57	大般若經	56	宙	3-4	1915년
19	大般若經	153	張	21(단면)	1865년	58	大般若經	56	宙	15-16	1915년
20	大般若經	162	寒	1-2	1865년	59	大般若經	67	洪	9-10	1915년
21	大般若經	2	天	21-22	1899년	60	大般若經	68	洪	2(단면)	1915년
22	大般若經	2	天	1-2	1899년	61	大般若經	73	荒	2(단면)	1915년
23	大般若經	9	天	1(단면)	1899년	62	大般若經	126	辰	19-20	1915년
24	大般若經	10	天	12-13	1899년	63	大般若經	141	列	6(단면)	1915년
25	大般若經	15	地	9-10	1899년	64	大般若經	144	列	23(단면)	1915년
26	大般若經	15	地	9-10	1899년	65	大般若經	153	張	20(단면)	1915년
27	大般若經	22	玄	16-17	1899년	66	大般若經	21	玄	13(단면)	1937년
28	大般若經	24	玄	15-16	1899년	67	大般若經	31	黃	26-27	1937년
29	大般若經	28	玄	11-12	1899년	68	大般若經	33	黃	12-13	1937년
30	大般若經	34	黃	5(단면)	1899년	69	大般若經	49	宇	6	1937년
31	大般若經	37	黃	9(단면)	1899년		大般若經	73	荒	2	1937년
32	大般若經	37	黃	10(단면)	1899년	70	大般若經	56	宙	15-16	1937년
33	大般若經	38	黃	8(단면)	1899년	71	大般若經	56	宙	3-4	1937년
34	大般若經	39	黃	7-8	1899년	72	大般若經	67	洪	9-10	1937년
35	大般若經	42	宇	7-8	1899년	73	大般若經	126	辰	19-20	1937년
36	大般若經	56	宙	23-24	1899년	74	大般若經	141	列	6(단면)	1937년
37	大般若經	67	洪	3(단면)	1899년	75	大般若經	144	列	23(단면)	1937년
38	大般若經	69	洪	24(단면)	1899년	76	大般若經	153	張	20(단면)	1937년
39	大般若經	96	月	14(단면)	1899년						

참고문헌

【자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보고서·단행본】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해인사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부산: 세종출판사, 2015.

법보종찰 해인사·불교문화재연구소,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관리 프로그램 구축』,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7.

법보종찰 해인사·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보존처리 연구용역사업』, 부산: 시선, 2020.

이지관 편저, 『해인사지』, 서울: 伽山文庫, 1992.

【논문】

김방울, 「월정사소장 고려재조대장경 인경본에 대하여」, 『서지학보』 31, 2007.

박광현, 「해인사 대장경 중복판의 인경본 조사와 시기분석」, 『미술사연구』 38, 2020.

박혜인, 「중복판과 인경본 비교를 통한 고려대장경판 보존관리」, 『미술사연구』 38, 2020.

서수생, 「大藏經版의 二重板과 補遺板의 形象」, 『어문학』 36, 1977.

신은재, 「14세기 고려대장경판 인경발원문의 내용과 그 의미」, 『미술사연구』 38, 2020.

小田乾治郎, 「大藏經印刷終了報告(1915)」, 『高麗板大藏經印刷願末』,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1.

최연주, 「조선시대 『고려대장경』의 인경과 해인사」, 『동아시아불교문화』 10, 2012.

최영호, 「해인사 소장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일제강점기 補刻板 조성현황과 성격」, 『한국중세사학회』 40, 2014.

_____, 「海印寺大藏經板에 포함된 중복경판 및 보각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과 보존방안」, 『문물연구』 30, 2016.

Supplementary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t Haeinsa Temple: Focus on Supplementary Woodblocks of the *Maha Prajnaparamita Sutra*

Shin Eunje, Park Hyein *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and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he *Tripitaka Koreana* at Haeinsa Temple is the world's oldest and most comprehensive extant version of the *Tripitaka* in Hanja script (i.e., Chinese characters). The set consists of 81,352 carved woodblocks, some of which have two or more copies, which are known as “duplicate woodblocks.” These duplicates are supplementary woodblocks (*bogakpan*) that were carved some time after the original production, likely to replace blocks that had been eroded or damaged by repeated printings.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survey, the number of supplementary woodblocks is 118, or approximately 0.14% of the total set, which attests to the outstanding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woodblocks.

Research on the supplementary woodblocks can reveal important details about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Most of the supplementary woodblocks were carved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or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Although the details of the woodblock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ve been recorded and organized to a certain extent, no such efforts have been made with regards to the woodblocks from the Joseon period.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duction date of the supplementary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The sutra with the most supplementary woodblocks is the *Maha Prajnaparamita Sutra* (*Perfection of Transcendental Wisdom*), often known as the *Heart Sutra*. In fact, 76 of the total 118 supplementary woodblocks (64.4%) are for this sutra. Hence, analyses of printed versions of the *Maha Prajnaparamita Sutra* should illuminate trends in the carving of supplementary woodblocks for the *Tripitaka Koreana*,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periods.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76 supplementary woodblocks of the *Maha Prajnaparamita Sutra*, 23 were carv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2 in 1915 and 11 in 1937. The remaining

* Lecturers, Department of History at Dong-A University

53 were carved during the Joseon period at three separate times. First, 14 of the woodblocks bear the inscription “carved in the *mujin* year by Haeji” (“戊辰年更刻海志”). Here, the “*mujin* year” is estimated to correspond to 1448, or the thirtie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ng. On many of these 14 woodblocks, the name of the person who did the carving is engraved outside the border. One of these names is Seonggyeong, an artisan who is known to have been active in 1446, thus supporting the conclusion that the *mujin* year corresponds to 1448. The vertical length of these woodblocks (inside the border) is 21 cm, which is about 1 cm shorter than the original woodblocks. Some of these blocks were carved in the Zhao Mengfu script. Distinguishing features include the appearance of faint lines on some plates, and the rough finish of the bottoms.

The second group of supplementary woodblocks was carved shortly after 1865, when the monks Namho Yeonggi and Haemyeong Jangung had two copies of the *Tripitaka Koreana* printed. At the time, some of the pages could not be printed because the original woodblocks were damaged. This is confirmed by the missing pages of the extant copy that is now preserved at Woljeongsa Temple. As a result, the supplementary woodblocks are estimated to have been produced immediately after the printing. Evidently, however, not all of the damaged woodblocks could be replaced at this time, as only six woodblocks (comprising eight pages) were carved. On the 1865 woodblocks, lines can be seen between the columns, no red paint was applied, and the prayers of patrons were also carved into the plates.

The third carving of supplementary woodblocks occurred just before 1899, when the imperial court of the Korean Empire sponsored a new printing of the *Tripitaka Koreana*.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dispatched to supervise the printing likely inspected the existing blocks and ordered supplementary woodblocks to be carved to replace those that were damaged. A total of 33 supplementary woodblocks (comprising 56 pages) were carved at this time, accounting for the largest number of supplementary woodblocks for the *Maha Prajnaparamita Sutra*. On the 1899 supplementary woodblocks, red paint was applied to each plate and one line was left blank at both ends.

Keywords: *Tripitaka Koreana*, complete edition, supplementary woodblocks, *mujin* year, 1865 supplementary woodblocks, 1899 supplementary woodblocks